

#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지사를 배우다

2026-04-09 (목) 07:22:41

(한인사회)

▶ 다솜 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4일 '인물로 배우는 한국 역사' 수업을 진행했다.<사진 다솜 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4일 2025-2026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인물로 배우는 한국 역사'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최재형의 삶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월 7일은 최재형 지사의 순국일을 앞둔 시점으로, 그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수업이 되었다.

따뜻한 나눔과 헌신으로 동포들을 돌본 최재형 지사는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서 '페치카'라 불릴 만큼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재형 지사는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러시아로 이주한 뒤, 선장 부부의 도움과 성실한 노력으로 자수성가

하였다. 이후 자신의 재산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동포 사회의 교육과 계몽에도 힘썼다. 그는 항일 비밀결사인 동의회 활동에 참여하고,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자립을 위해 '권업신문'과 '대동공보' 발간을 후원하였으며, 해외 한인사회의 정치적 구심점이 된 대한국민의회 활동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는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해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1920년 일본군에 의해 체포된 후 재판 없이 순국하였다.

수업 후 학생들은 고려인 팀과 카레이스키 팀으로 나누어 퀴즈 대회를 하며 학습 내용을 되짚고, AI를 사용하여 최재형 지사를 기리는 노래와 랩을 창작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

---

Copyright©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